



에 파 타

이 상 훈
경북대학교병원장

우리에게는 옛날부터 멋진 전통 예술인 판소리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명창을 중심으로 명고수가 옆에 있고 객석에서 열씨구하며 추임새로 흥을 돋우는 ‘귀명창’이 있어 이들이 서로 교감하며 어우러질 때에 제대로 된 판소리가 만들어졌다. ‘귀명창’은 명창에게 기운을 북돋는 예술적 동반자이자 든든한 후원자로서 이들 중에는 특별히 판소리의 대가와 명고수가 많았다. 요즘같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이때 ‘귀명창’들의 저변이 넓어진다면 우리 판소리도 다시 한번 황금기를 누리며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본다.

머지않아 전국은 또 한번 선거열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매번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여야는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자며 선언식을 갖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는 장면이 연출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저버린 그들의 행동에 국민들은 또 다시 정치판에 실망해야 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겪어 왔다. 언론과 각종 사회단체 역시 어느 한쪽의 가치에 편중되어 국민들을 편 가르기의 도구로 전락시키기 일췌이고 이러한 상황이 연속되면서 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후원자나 옹호자의 입장보다는 애써 무관심해지고 싶은 상황에 빠지게 된다. 자기의 입장과 반대되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잃어버린 우리의 정치문화가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정치가 항상 제일 낙후되어 있고 멋지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귀명창’들이 군데군데 포진되어 있지 못한 것일까?

이런 실망스러운 일상 속에서 문득 어느 신부님의 강론이 내 마음에 와 닿은 적이 있었다. 내용인 즉,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 이 신부보다 한 살 어린 농아가 한 명 있었다. 그 당시에는 농아라는 말도 잘 몰랐고 그저 “버버리”라고 동네 개구장자들이 막 놀려대었다. 그 아이에게 약을 올리면 그도 뭔가 화풀이를 하려고 온갖 애를 다 써보지만 그냥 버버거릴 뿐이었다. 물론 아이들은 그게 재미있다고 또 놀리기를 반복하였다.

그 아이는 누구나 다니는 초등학교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결국 집안일만 거들며 유년을 보내야만 했다. 사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를 만나면 늘 배시시 웃으면서 신부와 참 친하게 지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들은 서로 갈라져 다행히 그 농아는 대구에 있는 농아 학교에 갈 수가 있었다. 그곳에서 수화도 배우고 기술도 배워서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상장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신부가 되어 고향에 들러보니 그 친구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젠 혼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경운기도 잘 몰고 역센 일도 마다않고 하는 든든한 장골이 되어 있었다. 신부는 수도 생활하는 내내 묵상 중에 그 친구가 생각났다고 한다. 철모르던 시절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놀려대던 그 친구가 이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를 새롭게 가르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 필자도 외래에서 인공와우 이식수술을 통해 많은 농아 아동들을 재활시키면서, 가끔씩은 과연 내가 그들을 치유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귀도 멀쩡하고 입도 멀쩡한 나를 일깨워 주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다. 아니 나아말로 아직도 농아 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 딱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자문을 해보곤 한다.



언제나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옆에서 아무리 다른 소리를 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나의 귀,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말을 하고 옆에서 무슨 하소연을 하든지 입 한번 빙긋하지 않는 나의 모습,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충고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나의 입에서 마음대로 내 뱉는 무수한 말의 화살들. 이러한 말들로 인해 우리 자신의 순수함과 참된 본성이 가로막혀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귀의 건강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열려 있는 귀, 사소한 작은 시비들은 닫아버리는 귀, 양쪽 귀로 많이 듣고 적게 말하는 입, 다른 사람의 의견에 추임새가 되는 귀.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마음 속 귀가 멀어 있던 우리 모두에게 “에파타”라고 감히 주문하고 싶다. “에파타”란 성경에 나오는 말로서 “열려라”는 뜻이다. 올 한해 우리 모두 이 사회를 신뢰하며 여러 곳에서 많은 <귀명창>들이 탄생되기를 마음 속으로 기원하여 본다. 🌈